

“농촌 물관리 강화... 농어업손배 이의신청 가능”

지역 의원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가뭄·폭우 따른 재해보험 등 강화 나쁜 임대인 공개·은행법 개정안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 한 개정법률안 상당수가 지난달 27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추진 등 농촌 물 문제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뭄과 폭우에 대응한 농촌 물관리 계획 수립을 지체하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는 기후위기 대비 농촌 물관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남 등 남부 지역을 덮친 50년 관측 이래 최대 가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

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인 농어민이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농·수협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도 평가에 불만이 있으면, 주무 부처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손해 배상의 길을 열었다.

윤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이야말로 예상치 못한 재해로 피해 입은 농어민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자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이 대표발의한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고, 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집행, 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집주인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전세

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다른 법안과 통합·조정돼 정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해 주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은행 주주들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732만 재외동포청 광주가 최적지”

광주시, 본격 유치 나서 “국제 네트워크·인프라 강점”

광주시가 732만 재외동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의 광주 유치를 본격 추진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외교부에 재외동포청 광주유치를 희망하는 의향서를 전달했다.

재외동포청이 광주에 들어서면 정부기관 유치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민주·인권·포용도시 광주의 면모를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포용도시 광주는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풍부한 인프라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재외동포청 입지의 최적지”라며 “특히 공공기관이 거의 없는 광주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배려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수혜 대상에 광주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해 전국 최초로 선도적인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 동포 귀환 운동을 벌여 900여명의 고려인동포 국내 귀환을 돕고 국내 정착 지원 사업 등을 펼치기도 했다.

광주시는 재외동포 정착과 지원에 필요한 폭넓은 국제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강점으로 꼽고 있다. 민주·인권도시로서 국제기구, 해외도시와 활발한 교류와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매년 유네스코 등과 함께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는가 하면 오는 5월 중앙아시아 재외동포들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가 광주에서 출범한다.

또 20개국 40개 도시와 자매·우호교류를 맺고 있다. 국제교류센터·차이나센터·주광주 총영사관 등 다양한 국제관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외교부에 유치의사를 전달한 광주시는 국내외 거주 재외동포를 비롯해 각계의 의견수렴과 함께 유치 역량을 결집하고, 관계 부처에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박상지 기자



강시장, 2·28민주운동 기념탑 참배

한덕수 국무총리, 강기정 광주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이 지난달 28일 대구 두류공원 내 2·28민주운동 기념탑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 건축물 내진율 9.5% ‘전국 최저’

전국 평균 15.3%... 광주 17.8%

최근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으로 지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 건축물 내진율 조사가 발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건축물 내진율은 15.3%인 가운데 광주는 평균보다 높은 17.8%, 전남은 평균보다 낮은 9.5%로 파악됐다.

연구원이 기상청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지진통계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최

근 20년간(2002~2022년) 지진 발생 횟수는 전국 700회, 광주 4회, 전남 32회를 기록했다.

지진 규모별론 규모 2 이상 3 미만이 전국 624회, 광주 3회, 전남 27회로 가장 많았고, 규모 6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발생한 지진의 규모 극값(최대값)은 전국 기준 2016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이 최대였으며, 광주는 2013년 규모 3.2, 전남은 2014년 규모 3.3이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됐다.

지진 발생 횟수의 극값은 전국 기준

2016년 196회이며, 전국 사·도 중 경북이 2016년 179회로 가장 많았고, 광주는 2017년 2회, 전남은 2020년 6회로 나타났다.

김동주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원은 “이번 튀르키예 하타이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매일 접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 위치한 도시 ‘에르진(Erzin)’은 지진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책으로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며 “지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 저감을 위해선 지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함께 선제적 예방대응이 최선이다”고 제언했다. 박상지 기자

전남일보 페이스북 facebook.com/jnilbo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it's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